



CHANEL
FINE JEWELLERY

COCO CRUSH

RINGS AND BRACELETS IN DIAMONDS, WHITE AND YELLOW GOLD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8
vol.180




ROLEX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Perlée Collection
Pink gold, yellow gold
and diamond bracelets.





표지에 등장한 워치는 새로운 다이얼과 차세대 칼리버 2236을 장착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저스트 31 모델이다. 실리온 소재 실룩시 헤어스프링을 장착한 무브먼트 칼리버 2236을 사용했으며 새롭게 디자인한 케이스 측면과 라그, 그리고 다이얼은 새틴 베젤이 특징이다.
문의 02-2112-1251



24



10

- 12 **ANNE IMHOF** 2017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가장 화제가 된 작가 2명을 꼽는다면 매머드급 조각의 황연을 벌인 미술계 슈퍼스타 데이미언 하스트(Damien Hirst)와 독일 국가관을 맡아 황금사자상을 받은 안네 임호프(Anne Imhof)가 아닐까 싶다. 독일과 수상작은 파우스트(Faust). 고편의 화곡과 동명의 타이틀이지만 작품 내용과는 관련 없는, 독일어로 '주역(aust)'이라는 뜻의 작품이다. 술한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안네 임호프를 만나러 프랑크푸르트를 찾았다.
- 14 **SIMPLE ELEGANCE** 어느 장소에서나 부드러운 재료를 드러내는 남성용 클래식 워치의 매력.
- 16 **GOOD NATURED** 가장 정교하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실루엣은 모두 자연을 우러르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서 태어난 유색색으로 완성한 자연 모티브 주얼리.
- 18 **2018 F/W MENSWEAR** 레트로, 스트리트 패션, 말레-알 세레. 이제 이 단어를 엮는 패션 트렌드를 이야기할 수 없다. 디지털 세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 또한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럭셔리 하우스의 전략은 관용이 없는 물론 남자들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트렌드 키워드 7.
- 20 **MOST PRECIOUS** 1백만원을 호기함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럭셔리 코즈메틱의 자력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첫 느낌에서부터 남다른 과시한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이는 없다는,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최상의 뷰티 케어, 프리미엄 코즈메틱.
- 21 **TRIBUTE TO FEMININITY** 시대를 초월한 주얼리의 아름다움과 섬세함. 고품, 그 이상을 지어내며 잠시 시간을 잊게 만들었던 불가리의 전시회, 불가리의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Tribute to Femininity)> 전시가 모스크바에서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 24 **DELIGHTFUL ACTS** 왕족들의 진기한 물건들 모아둔 비밀스러운 공간, '호기심의 방(Wunderkammer)'에서 영감을 받은 감미로운 서 특색 투는 패턴과 컬러, 아티스틱한 모티브를 반영한 아이그너의 2018 F/W 컬렉션과 배우 한고은의 유쾌한 만남. 사랑스러운 예니지로 가득했던 그 한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 30 **CHECK, PLEASE** 클래식을 대표하며 타임리스한 패턴으로 사랑받는 체크. 이번 시즌, 레트로 무드와 함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구현한 체크 패턴의 매력.
- 31 **REFINED LUXE** 배우 감남주가 밀라노를 찾았다. 정인 정신과 전통, 패미리한 실루엣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파비아나 필리피와 감남주의 스페셜 모먼트.
- 32 **MODERN GREY** 브랜드 기차는 단 한순간에 많은 것을 드러낸다. 신제품 향수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는 남자의 신중한 선택이 얼마나 강렬한 매력을 표현하는지 보여준다.
- 33 **MASTERING CAVIAR** 라프래리의 스킨 캐비아 컬렉션은 300년 이 넘는 역사를 지닌 클래식이 되었다. 올해 클래식 크림을 리마스터링한 스킨 캐비아 크림 프리미어를 다짐 선보이며 과학과 예술을 담은 진정한 마스터피스 기부를 보여준다.
- 34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완벽한 가을을 만끽하게 해줄 뷰티 리스트.

RICHARD M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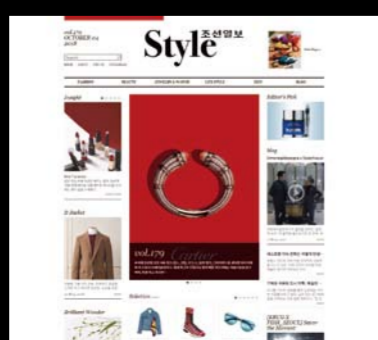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180 October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찾아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Didier Gourdon

CALIBER RM 037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포토 그래픽 박민주

Jewel GLAMOROUS CHIC

화려하고 아름다운, 환상적인 여성을 위한 선명한 컬러의 주얼리.

(왼쪽부터) 원석 고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자수정 루이노 네크리스 2백만원대 **타사키**, 시트를 붙여주고 있는 맨드 드 카르티에 네크리스 3백만원대 **가브리엘레**, 로즈 골드 스키에 에미스트, 토이즈, 페리도트, 투르말린, 루블라이트 등 다양한 유색석을 세팅한 다바스 드림 브라이덜릿 2백만원대, 다바스 드림 네크리스, 2천 5백만원대 모두 **블라진**, 12mm 남양 흑진주를 다양한 유색석과 함께 불꽃처럼 표현한 파운틴 네크리스 1천만원대 **타사키**, 에디터 **베이지**

Living IT'S A DREAM KITCHEN!

주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LG 시그니처 커친 스위트.

결혼한 여성들 최고의 로망을 실현해줄 곳, 바로 프리미엄 주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LG의 프리미엄 빌트인 브랜드 '시그니처 커친 스위트'의 눈선 소품을 소개한다. 특히 이곳은 세계 최고의 건축가 중 한 사람이 꿈꾸는 톰 메인(Thom Mayne)과 함께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전시장을 꾸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47년 단숨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빌트인 가전제품을 앞세워 가구를 포함한 꿈의 주방에 대한 토크 솔루션을 제안하는 형태로,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이 예술이 되는 공간'이라는 멋진 슬로건을 내건 이곳은 최고급 디자인과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주방 가구의 감각적인 조화가 아름다운 예술적 공간으로 탄생했다. 시그니처 커친 스위트 눈선 소품 1, 2층에는 톰 메인 디자인인 브랜드 갤러리가 위치하며, 3층에서는 시그니처 커친 스위트의 다양한 빌트인 공간 스타일을 선보인다. 또 4층에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쿠킹 스튜디오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난 8월에는 오픈 1주년을 기념해 시그니처 커친 스위트를 구성하는 냉장고와 오븐, 전자레인지, 후드, 식기세척기 등 기존 7종의 제품에 냉장고 4종, 조리 기기 3종 등 신제품 7종을 추가로 선보여 커친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 이처럼 LG전자가 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풀 라인업을 완성한 이유는 최근 주방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추종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단순한 빌트인 가전을 넘어 아름다운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시그니처 커친 스위트 눈선 소품을 방문해보자. 문의 02-3777-3396 에디터 **이재현**



Fashion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럭셔리 하우스

지난 9월, 10월 두 달에 걸쳐 개최된 뉴욕, 밀라노, 파리, 런던, 세 패션 위크는 그 어느 때보다 패션 피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동시에,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패션 뉴스와 리얼타임 영상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 이유인즉슨, '지나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교체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브랜드들의 소식으로 패션계가 뜨겁게 달구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면 브랜드의 정체성과 디렉터의 색깔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총틀이 예상되기도 하고,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니 그 변화와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패션을 뒤집은 주인공은 로고까지 새롭게 바꾸며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버버리와 켈린느다. 버버리와 켈린느의 새로운 수장이 된 리카르도 티사와 에디 슬리먼은 모두 추종자가 있을 정도로 팬덤이 두텁고, 그만큼 본인만의 철학과 스타일이 분명한 이들이다. 지난 3월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리카르도 티사는 클래식한 공개 전, 버버리를 브랜드 창립자인 토마스 버버리의 아인사일인 T1이라는 티셔츠를 연상케 하기도 한 디자인과 B를 디자인 로고와 광고 이미지를 공개해 그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욱 흥분케 했다. 달린 로고와 함께 레디 투 웨어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버버리 특유의 오랜 클래식 전통에 그만의 변형적이고 경쾌한 우드를 더한, 영국적인 태도에 경의를 표하는 강경 클래식으로 데뷔 무대를 치른 것. 이와 함께 소 지류 한정판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디지털 세대 사이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영국 패션을 대표하는 비버리 엑스 투우와 협업을 진행해, 그 예컨대 올 12월에 공개할 예정인 영국 거장들이 만나 이 루아넬 아름다운 시나리가 기대되는 버버리, 버버리와 더불어 현재 패션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켈린느의 에디 슬리먼 역시 로고에 변화를 주고, 에디를 떠올리듯 늘 연장되는 미끈 몸의 모 델들과 아주 슬림하고 짙은 의상을 등장시켜 과거 피인물이 구축해온 켈린느의 이미지를 180도 바꿔놓았다. 그가 무대에 올린 총 96%의 남녀 토탈룩은 한눈에 봐도 에디 슬리먼의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주먹구구를 살린 스타일이지만, 기존 켈린느 특유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실루엣을 사형하던 기존 고객들에게는 신경질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 '에디 슬리먼의 칼날'을 켈린느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등의 논점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찌 되었건 이런 변화는 기존 고객에 떠나 새로운 고객에 유망하기 때문이고, 브랜드가 위기를 무릅쓰고 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 이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꽤 즐거운 경험일지도 모른다. 이 두 브랜드 외에도, 토마스 마이어의 뒤를 이어 다비드 라가 새롭게 이끄는 보테가 베네통의 뉴 클래식선이 다음 시즌에 본격적인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어떤 이가 구찌의 일렉트로닉스 미켈레와 같은 성공의 주역이 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에디터 **권민진**

INSIGHT

편집부가 개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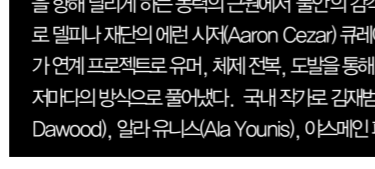
It Place 벨 에포크 시대의 낭만을 현대 감성으로, 샴페인 라운지 르 카바레 도산

미식 문화가 갈수록 중요하고 다채로워지고 있는 요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예술적 낭만이 파리를 수놓은 문화적 황금기를 일컫는 벨 에포크 시대의 낭만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색다른 공간이 등장해 주목된다. 서울 에든 호텔 18층에 문을 연 샴페인 라운지 르 카바레 도산 (Le Cabaret Dosan)이다. 벨 에포크 시대에 상인을 위한 미식과 사교의 장이던 카바레 문화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이 라운지는 '샴페인 페어링(champagne pairing)'이 미식에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기에 생긴 만큼 참신한 맛과 멋의 앙상블을 추구하는 이들의 눈길을 끌 듯하다. 남성과 한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원한 전망을 품은 데다 개폐식 동형 지붕까지 있어 밤하늘의 운치를 느낄 수 있으며, 시선을 절로 잡아끄는 커다란 샴페인과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 샴페인 셀라지 분위기를 북돋우는 인테리어, 감미롭거나 활판 음악 등 샴페인을 곁들인 미식을 세련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즐기도록 세심한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미각을 담당하는 주인공은 프렌치 레스토랑 프렘의 오너 셰프 출신인 이영라 셰프와 소믈리에 안대훈 매니저. 특이하게도, 코스까 아닌 일곱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한 상 차림'으로 샴페인과 페어링되는데, 질에 맞는 음식과 최상의 샴페인을 짝지어 셰프가 알아서 내주는 오마카세 방식을 택했다(저렴한 식재료를 기본으로, 3주마다 메뉴가 바뀐다). 한미미로 프렌치 오마카세 매뉴얼 생이다. 영업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새벽 1시, 금·토요일 오후 6시~새벽 2시. 문의 02-6713-6730(오후 5시부터)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오민 개인전 <연습곡>+ 송은아트스페이스의 그룹전 <델피나 인 송은: 파워플레이>

울기를, 절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흥미로운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오는 11월 4일까지 열리는 오민 작가의 개인전 <연습곡(Étude)>, 그리고 오는 12월 1일까지 개최되는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의 그룹전 <델피나 인 송은: 파워플레이(Delfina in SongEun: Power Play)>. 먼저, 오민 작가는 제7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로 올해 초 파리 몽파르뜨에 있는 레지넨스를 거쳐면서 이번 전시에 발표할 신작을 선보이게 됐다. 원래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 시절 디자인으로 방향을 튼 후, 현대미술계에서 촉망받는 작가로 거듭난 오민은 현재 앙스타르르에서 거주하면서 음악의 구조를 영상 작업에 대입해 자신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2개의 상를 차례 비디오와 5차원 비디오, 라이브 퍼포먼스로 구성된 자신의 전시 작품에 대해 오민은 "연습을 거듭하며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리게 하는 동력의 근원적 불안의 감각을 마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은아트스페이스의 전시는 영국 델피나 레지넨스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델피나 재단의 이란 사저(Aaron Cezar) 큐레이터와 함께 다국적 10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델피나 레지넨스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해 선보이는 국가 연극 프로젝트로 유머, 체제 전복, 도발을 통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권력에 대해 조각, 시문, 영상, 설치, 드로잉 등의 매체를 통해 작가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국내 작가로 김재현, 박보나, 박정기, 인정주, 정소영, 해외 작가로는 린타란 시(Lantana Xie), 셰흐르 다우드(Shehz Dawood), 알라 유니스(Ala Younis), 이스메인 비서(Jasmijn Visser), 오스카 산틸란(Oscar Santillan)이 참여했다. 에디터 **고성연**



PRADA



+82-3443 2323 PRADA.COM



for him
Selection

부드럽고 온화한 카리스마를 부여해줄, 남성을 위한 가을 셀렉션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라이트 그레이 자리아드 터틀넥 니트웨어 1백45만원, 라이트 그레이 오버 셔츠 아우터웨어 4백33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일로 제작.

브라운 투톤 프래임 신들라스 30만원대 배틀리 by 록스타카기.

코트 위에 멋스럽게 두를 수 있는 체크 머플러 45만원 구찌.

베이스탄 뉴트럴 칼라감의 스웨이드 스니커즈 1백4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카기 컬러 레더 글러브 가죽 미장 장갑 1백45만원, 생바탈라 배틀리.

스코티함을 물씬 풍기는 울트라-다운 글러브 가격 미정 지제나.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지어내는 캐주얼 스웨이드 켈시 부츠 1백70만원대 로로피아나.

다양한 컬러와 패턴이 가능한 양털 모티프 베스트 2백40만원 장 로랑 1982.

브라운 톤에 은 컬러 카프스 70만원대 배틀리.

세련미와 양감의 아스타르 아방트 장갑서 에르메네제일로.

차분한 가을룩에 잘 어울리는 배이지 스웨이드 벨트 65만원 브리오나.

유아와 근방 남색인 프론트 컬러의 100% 스코트 스카치인양털의 솔리드 컬러 프론트 컬러인양털 배틀리만 롱블라우.

울 소재의 가죽 벨트 트랜지먼트 4백70만원, 스트라이프 터틀넥 가격 미정 모두 다들.

포근해 보이는 화이트 시디링 백백 32x40cm, 3백20만원대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가벼운 패턴이 그려진 브라운 실크 타이 25만원 프라다.

가죽, 울 소재의 카방 컬러인양털 65만원대 배틀리.

구찌 1577-1921
가르다에 1566-7277
록스타카기 02-501-4436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에르메네제일로 제작 02-518-0285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보테가 베네테라 02-3438-7682
로로피아나 02-546-0615
2 몽클레르 1952 02-514-0900
브리오나 02-3274-6483
프라다 02-3218-5331
지제나 02-755-0287
에르메스 02-542-6622
몽블랑 1670-4810
다들 02-3480-0104



Ermenegildo Zegna



FEATURING SEHUN



for her
Selection

보기만 해도 포근하고 부드러운,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가을 소재와 컬러로 이루어진 여성 셀렉션.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풍성한 니트는 섹시한 질감을 자랑하며, 잘 어울릴수록 매력의 포인트가 되는 2색이상의 구멍.
라운드 세이프가 돋보이는 레오파드 프레임 선글라스 40만 원대
올체 앤 가바나 by 루스타카.

가을 핏에 보인다가 돋보이는 컬러 레오파드 프레임 선글라스 51만 원대
올체 앤 가바나 by 루스타카.

상차 레오파드 소재에 세련된 비닐이 어우러진 올체 앤 가바나 22x18cm, 가격 미정
올체 앤 가바나 by 루스타카.

단정하면서도 풍성한 핏을 자랑하는 루스타카의 올체 앤 가바나 22x18cm, 가격 미정
올체 앤 가바나 by 루스타카.

스타일링에 유용한 아사시노의 이색형, 무어터 에디션

미니 사이즈의 핏을 자랑하는 올체 앤 가바나 22x18cm, 가격 미정
올체 앤 가바나 by 루스타카.

구조적인 핏과 돋보이는 올체 앤 가바나 22x18cm, 가격 미정
올체 앤 가바나 by 루스타카.

유리한 바디 핏과 돋보이는 올체 앤 가바나 22x18cm, 가격 미정
올체 앤 가바나 by 루스타카.

이제벨마당 02-516-3737
구찌 1577-1921
루스타카 02-501-4436
로에베 02-6905-3470
토즈 02-3438-6008
까르띠에 1566-7277
버버리 080-700-8800
펜디 02-2056-9023
루이 비통 02-3432-1854
미우미우 02-3218-5331
이브산로몬 02-3479-6111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올체 앤 가바나 02-3433-6501
아사시노 레오 02-3430-7854
발렌티노 가바나 02-2015-4653

핑크 색상의 링크 퍼 칼라가 시릴스라운 체크 코트 6백99만원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S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Anne Imhof

The Women Who Inspire Us *interview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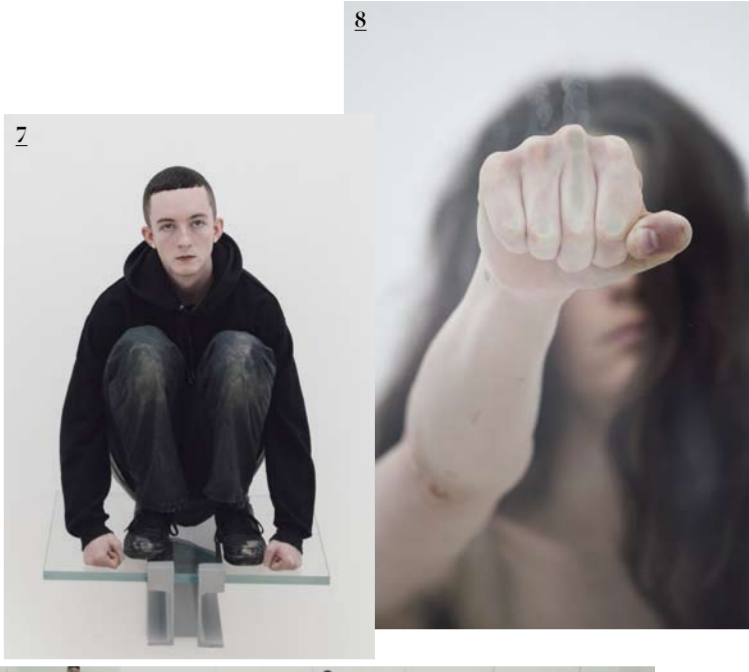
2017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가장 화제가 된 작가 2명을 꼽는다면 매머드급 조각의 향연을 벌인 미술계 슈퍼스타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와 독일 국가관을 맡아 황금사자상을 받은 안네 임호프(Anne Imhof)가 아닐까 싶다. 독일관 수상작은 파우스트(Faust), 괴테의 희곡과 동명의 타이틀이지만 작품 내용과는 관련 없는, 독일어로 '주먹(faust)'이라는 뜻의 작품이다. 술한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안네 임호프를 만나러 프랑크푸르트를 찾았다.



이탈리아의 수상 도시 베니스는 '제발 그만 좀 와달라'고 주민들이 하소연을 쏟아낼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기가 너무 많아 괴로운 도시다. 항상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데다 물길과 좁은 골목 때문에 몹시 느리고 힘든 행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그렇게 베니스를 계속 찾게 만드는 매력의 동인으로 1세기 넘는 역사를 지닌 비엔날레를 꼽는 이들도 많다(올수 해에는 현대미술전인 아트 비엔날레가, 짝수 해에는 건축 비엔날레가 열린다). 물론 베니스 비엔날레를 떠받치는 하나의 큰 축인 자르디니(Giardini)가 한국, 프랑스, 일본 등 국가관이 전용관을 두고 저마다 자양을 거루는 구도인 탓에 "예술이 무슨 올림픽 종목이나"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그래도 세월과 함께 여문 풍부한 녹음(자르디니는 실제로 '정원이란 뜻이다) 속에 자리 잡은 전시 터 자체가 예술이기에, 또 가끔은 인상이 길게 남거나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나게 되는지라 굳이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찾게 되는 듯하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해 여름의 방문은 꽤 의미 있었다. 베니스의 그녀를 만나는 계기가 됐으니 말이다. 초반부터 엄청난 화제물을 했을 뿐 아니라 언론에서 '센세이션'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독일 국가관을 맡아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품에 안은 1978년생 작가 안네 임호프(Anne Imhof)가 바로 그녀다.

2017 베니스 비엔날레가 낳은 스타, 황금사자상 거머쥔 '파우스트'로 세계의 주목을 받다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은 황금사자상 발표가 나기 전에도 이미 '인기'상은 거머쥔 거나 다름없었다. 이 거대한 다국적 축제가 시작된 5월 초 프리뷰 기간부터, 매일 아침 파리를 틀 정도로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관람객들 때문에 입장하는 데만 1시간 넘게 소요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 필자는 8월 중순께 갔는데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사실 당시 베니스에 간 주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터라 몹시 뻑뻑한 일정에 긴 줄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의 강력한 추천이었다. 건축, 미술, 오페라 등 다방면에 박식하고 취향도 확고한 패션 디자이너 릭 오웬스(Rick Owens)가 "이번 비엔날레 기간에 꼭 보라고 당부하고 싶은 2개의 전시 중 하나"라고 한 것이 바로 안네 임호프의 파우스트(Faust)였다. 베니스 본섬 끝자락에 있는 자르디니와 그리 멀지 않은 리도섬에서 여름을 보내던 릭 오웬스는 자주 나다니는 성향이 전혀 아니지만, 비엔날레 같은 문화 예술 행사는 은근히 티 안 내고 잘 챙겨 보는 편인데, 파우스트를 언급하면서 주저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실제로 접한 파우스트는 묘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나치 정권의 주도 아래 재건된 만큼 히틀러의 욕망이 반영된 듯한 천장 높은 전시장은 철제 프레임과 투명한 유리로 덮인 바닥 덕분에 발아래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어 긴장감을 주었다. 벽에는 전시장 밖에는 저도 모르게 흠칫 물러서게 만드는 검은색 도베르만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윽고 배우들이 나타났다. 컷워크를 걷는 좀비 콘셉트의 모델처럼 걷기도 하고, 지붕 위, 벽에 박힌 선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기도 하고, 머리를 벽면에 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호스의 물을 뿌리거나 자위를 하거나 생물의 날개를 뜯어내는 등의 연출도 있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렇듯 공간 구석구석에서 불쭙불쭙 등장하는 배우들은 공통적으로 검은색 옷차림에 무표정한 듯, 혹은 노려보는 듯 중얼거릴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듯한 음악이 공간을 감싸기도 했다. 이 속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퍼포먼스는 권력과 자본이 편치는, 발가벗겨진 듯 모든 게 노출되지만 단절은 더 심해지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다. 시간의 제약으로 축약된 비전의 일부만 봤을 뿐이지만(오리지널 비전은 장장 5시간이다) 공간이 뿜어내는 강한 에너지와 출연진의 눈빛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누군가는 사회성 짙은 독일 울리 에델 감독의 영화 <크리스타야네 F.(Christiane F.)>의 한 장면, 누군가는 S&M 극 무대가 떠오른다고도 한다. 확실한 건 음울한, 하지만 언더지 이터널로 구석에 있는 잔혹극이라는 점(잔혹 오페라의 대명사로 꼽히는 <살로메>를 사랑하는 릭 오웬스가 꽤 칭찬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살짝 멍해지 듯, 생각에 빠지면서 전시장을 나가게 된다는 점이었다. 알랭 바디우 같은 철학자는 관객이 극장에 오는 건 교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극 이념이 주는 '충격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



프랑크푸르트의 그녀를 만나러 가다

어쩌거나 그녀가 궁극했다. 축약된 비전의 일부만 봤을 뿐이지만 라이브 퍼포먼스, 그림, 조각 등이 어우러진 그 공간의 강렬한 에너지를 만들어낸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인지. 베니스 비엔날레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가 된 안네 임호프는 베를린, 뉴욕 등을 오가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향 기센(Giessen)에서 멀지 않은 프랑크푸르트의 스튜디오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마침 그녀는 파우스트의 LP 앨범 작업을 막 끝냈다고 했다. "A, B, C, D면이 있는 더블 앨범인데, D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10분 분량을 온전히 담고 있어요. 맨 끝이 계속 반복되는 '엔들리스 루프' 방식이에요. 절규하는 듯한 소리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식이지요." LP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몰랐다면 설명하는 그녀는 멋지지 않나면서 해맑게 웃었다. 사실 필자는 꽤 냉철하고 이지적인, 속을 잘 모를 듯한 이미지를 미리 연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네 임호프는 조금은 수줍고 어린, 그러면서도 꽤 밝고 솔직해 보였다. 릭 오웬스가 찬사를 보냈다는 얘기에 "와, 정말인가요?"라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유명세에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비난도 따르는 법인데, 파우스트를 비롯해 그녀를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로 처음 널리 인정받게 만든 'Angst' 시리즈(2016) 등 그녀의 작품을 영상으로 접한 이들 중에는 '악플'을 다는 이들도 많다. 특히 파우스트의 대대적인 성공 뒤에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비난도 많이 쏟아졌다. "일부러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일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해요. 하지만 그(작품) 안에 있는 '좋은 것'도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반응에 신경 쓰느냐고 묻자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안다는 듯 미소 지으면서 "그렇지만 작업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며 신이 행운이라고 말했다.

안네 임호프는 자신이 무라고 있고 있는 명성이 진정한 '협업의 소산'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팀 동료들과 주고받는 영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럭셔리'라고 했다. 그녀에게는 주로 음악을 담당하는 빌리 볼틀(Billy Bultheel), 안무가 강점인 프란치스카 아이그너(Franziska Aigner), 자신의 뮤즈이자 파트너로 음악과 퍼포먼스 등을 맡고 있는 엘리자 더글러스(Eliza Douglas) 등 대부분 친구와 지인으로 이뤄진, 단단한 유대를 지닌 팀이 있다(파우스트에서는 큐레이터 수잔 페퍼(Susanne Pfeffer)를 비롯한 또 다른 걸출한 협업진도 있었다). "학창 시절부터 알던 친구들 위주로 뭉쳤는데, 제 팀이 함께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우리에게 각자 강점에 따른 역할이 있지만(엘리자는 그림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아티스트이자 빌렌시아가 무대에 서는 슈퍼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주요 멤버인 4명은 최근에는 음악 작업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독학한 경우지만요." 놀라운 점은 사실 그녀는 초반에는 모든 걸 혼자 했다는 사실이다. 학교(Städelschule)에 다닐 때도 좀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 몇몇 친구는 마지막 졸업 작품전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을 정도라고. "제가 부끄러움을 좀 타기도 했고,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고, 또 원래 집에서 혼자 작업을 해온 탓이기도 했어요. 예술 학교에 지원한 것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누구의 '무엇'이 아닌 그냥 아티스트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원래는 사진을 배우는 학교에 다녔는데, 10대 후반에 미혼모가 됐고, 혼자서 밥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느라(클럽에서 일했다) 정신없이 달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순탄하지 않은 시기였죠. 그런 와중에도 정말 미친 듯이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기 전까지는 작업을 집에서 혼자 했기 때문에 누구도 제 작품을 보지 못했고, 전 정말이지 절박했죠." 때때로 이런 성장 스토리가 자신을 오롯이 아티스트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에 빛나는 영예에도 누군가는 흔히 붙이는 '취미 작가'라는 수식어. 그것 말고도 그녀에게는 '상글맘'이라는 명어가 있었다. 삶의 큰 부분이자 소중한 딸이기에 정작 자신은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들과 다른 골목을 걷는 여성 아티스트에게 유독 주홍 글씨처럼 딱지가 많이 붙는다. 심지어 '여성'이나 '엄마'라는 딱지도 쓸데없는 수식어 아닌가. 안네 임호프의 말대로 그녀는 자신의 팀 동료들과 함께하는 작품을 설명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저 좋은 작가일 뿐"인데 말이다. 그 모든 것에도, 작가로서의 인정, 돈독한 창조적 팀워크, 가정, 파트너 등 자신의 성을 잘 쌓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그녀가 줄곧 다뤄온, 그리고 우리 대다수가 고민하는 '불안(angst)'이라는 감정은,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좁다른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음, 좋은 질문이네요." 그녀는 잠시 골똘히 생각했다. "확실히 파우스트 때문에 바뀐 건 있어요. 어린 입장에서 급격한 변화였고, 성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은 존재 없이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지만요. (웃음)" **글 고영연**



1 지난해 열린 5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각국의 국가관이 자양을 거머 '안테아'를 올림피아라 불리는 자르디니 전시에서 파우스트(Faust)라는 작품으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안네 임호프(Anne Imhof). Photo by Nadine Fraczkowski. 비엔날레 총감독이 지휘하는 아르세날레 기슭에는 작년에 돌아오는 황금사자상 역시 독일 작가인 프란츠 에버하르트 빌타가 받았다. 2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을 수놓은 파우스트 공 연 현장. Photo by SY KO 3 창작에 몰두하는 안네 임호프. 4 안네 임호프, 'Ropedancer'(2016), ink on paper, 35.7x26.7cm. Courtesy: the artist, Galerie Buchholz, Berlin/Cologne/New York. 5 안네 임호프, 'Untitled'(2016), oil, acrylic, felt tip pen, gouache on primed canvas, 140x100x2cm. Courtesy: the artist, Galerie Buchholz, Berlin/Cologne/New York. 6 라이브 공연, 설치, 조각, 페인팅 등이 어우러진 파우스트를 선보인 독일관 건물 외관. Photo by Ugo Carmeni, Courtesy: German Pavilion 2017, the artist. 7-9 파우스트 퍼포먼스 장면. Photo by Nadine Fraczkowski, Courtesy: German Pavilion 2017, the artist. 8, 9번의 출연자가 안테아의 피트너이자 아티스트, 패션 모델인 엘리자 더글러스(Eliza Douglas). 10 2016년 베를린의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반호프(Hamburger Bahnhof)에서 공연된 'Angst II'. Photo by Nadine Fraczkowski, Courtesy: the artist, Galerie Buchholz, Cologne/Berlin/New York. 11 2013년 파로이스 작품 'Parade' 중 'Aqua Leo, 1st of at Least Two', Photo by Nadine Fraczkowski, Courtesy: the artist, Portikus, Frankfurt.



simple Elegance

어느 장소에서나 부드러운 자태를 드러내는 남성용 클래식 워치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시계 방향) 카르띠에 드라이브 드 카르띠에 엑스트라 플랫폼 워치 두께가 슬림한 드라이브 드 카르띠에 엑스트라-플랫 워치는 손목을 정교하게 감싸는 착용감이 매력적인 컬렉션이다. 오리지널 모델에 비해 두께를 40% 축소해 가볍고 신축한 느낌이다. 물론 카르띠에 매뉴팩처 매뉴얼과 인딩 매개-립 무브먼트, 430 MC 칼라바를 장착해 기계적인 완성도도 흠집을 갖지 않다. 다양한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남성용 이브닝 워치로 제작이다. 1천만원대. 문의 1566-7277

블랑팡 발루레 그랜드 데이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 요일을 레트로그레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칼리브레 121 워치. 발루레 컬렉션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더블 스텝 베젤, 슬림한 케이스, 우아하면서도 정제된 핸즈와 인테스가 시계 매니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다이얼의 자태만으로도 클래식하면 서도 세련된 매력을 충분히 표현한다. 새로운 6930GC 인허우스 무브먼트로, 72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2개의 메인 스프링 배럴을 갖춘 칼리브 1130에 브랜드의 가치를 담았다. 2천만원대. 문의 02-3213-2261

몽블랑 스타 레거시 문예이즈 6시 방향 창에 표시되는 문예이즈는 날짜와 함께 다이얼에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몽블랑 남성 워치 중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모델이다. 42mm 슬림 다이얼과 블랙 엘라메터 스트랩을 더했으며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브 MB 29.14를 장착했다. 5백만원대. 문의 1670-4810

에르 로콜트로 리베리스 트리뷰트 듀오케이스 라지 케이스 실버와 앤트시이트 그레이, 2개의 다이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모델. 에르 로콜트로 칼리브 854C/2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뛰어난 가죽 재질을 만드는 유명한 이브랜드나 수제 화 장인이 수공으로 제작하는 까사 파글리아노 코도반 가죽 스트랩을 더해 최소가치를 높였다. 2천만원대. 문의 02-6905-3998

오메가 마스터 울림띠 공식 타임퍼 스매셜 에디션 울림띠 대회의 금메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클래식한 모델. 빈티지 오메가 로고와 마스 트랙, 에. 퀴레로 장식한 마스터 문구가 눈을 사로잡는다. 18K 레드나 골드나 장식한 케이스백에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부터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대회에 이르기까지 오메가의 울림띠 경기 여장을 이룬 도시와 날짜가 새겨져 있다.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브 8807을 장착했다. 2천만원대. 문의 02-511-5797

브래게 클래식 5177 3시 방향의 날짜창, 아름다운 블루 스틸 브래게 핸즈, 아름다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셀프윈딩 칼리브 7770 무브먼트에 브래게의 전통적인 매력파 진보적인 기술을 모두 담았다. 38mm 직경의 다이얼 속에 클로드 피리 패턴을 적용한 다이얼이 아름답다. 가격 미정 문의 02-3438-6218 에드터 배미진



Brooks Brothers

TWO HUNDRED YEARS of AMERICAN STYLE

롯데 잠실점 5F | 02.2143.7682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신세계 센텀점 5F | 051.745.2855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B1F | 02.2052.6337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3F | 02.6288.0859

BROOKSBROTHERS.CO.KR

good Natured

가장 정교하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실루엣은 모두 자연을 우러르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서 태어난 유색석으로 완성한 자연 모티브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더오브밀로 순수한 진꽃빛을 표현한 매직 알함브라 롱 네크리스 2천2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팬더의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팬더 드 카르피에 링 4천만원대 까르띠에, 18K 핑크 골드에 2개의 카보숑 컷 밀라카이트를 세팅한 포제션 핑크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피아제, 핑크 사파이어와 옐로 사파이어 사랑스러움으로 꽃잎을 표현한 페탈 네크리스 6백만원대, 꽃의 아름다움을 에메랄드와 루비, 핑크 사파이어로 훌륭하게 묘사한 오프로드 펜던트 4천만원대 모두 타사키, 유연성이 뛰어난 세르펜티 루블라 브레이슬릿, 8컷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로 별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6천8백만원대 불가리, 동백꽃의 사랑스러움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까말리아 네크리스 가격 미정 사넬 화인 주얼리, 0.1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1백5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링 2천3백만원대, 1백7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이어링 3천9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그린 칼리 밀라카이트로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완성한 알함브라 밀라카이트 브레이슬릿 1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부채꼴 모티브로 꽃을 표현한 다마스 드림 링 1천9백만원대 불가리, 우아한 동백꽃 모티브의 까말리아 링 가격 미정 사넬 화인 주얼리, 두 마리 나비의 움직임을 아름다운 투 바티플라이 차보라이트 비드 원더 핀가 링 2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먹이를 향해 점프하기 전, 처분하야 있는 팬더를 형상화한 팬더 드 카르피에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까르띠에, 원형 모티브를 정교하게 세공한 부통 도트 링 2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2mm 남강 흑진주와 블랙 스피넬, 투르말린, 가넷, 시트린으로 유색석의 다채함을 볼록돌이처럼 표현한 파운틴 링 9백만원대 타사키, 에디터 베이진

까르띠에 1566-7277 불가리 02-2056-0170 타사키 02-510-1854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피아제 02-540-2297 사넬 화인 주얼리 080-200-2700

la prairie
SWITZERLAND

LIFTING
ELEVATED TO NEW HEIGHTS

REMASTERED WITH
CAVIAR PREMIER



GOING BEYOND WHAT WAS PREVIOUSLY THOUGHT POSSIBLE, CAVIAR PREMIER CAPTURES THE FULL POTENTIAL OF CAVIAR FOR NEVER-BEFORE-SEEN LIFTING AND FIRING PAIRED WITH A NEW DIMENSION OF SENSORIAL INDULGENCE.

2018 F/W Menswear

레트로, 스트리트 패션, 밀레니얼 세대. 이젠 이 단어들이 없는 패션 트렌드를 이야기할 수 없다. 디지털 세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 또한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럭셔리 하우스의 전략은 분명히 남성들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트렌드 키워드 7.

Trend 1. Check Point 남녀 구분 없이 체크 패턴 자체가 쏟아져 쏟아져 쏟아지는 요즘, 2018 F/W 컬렉션에서 체크 패턴을 선보인 브랜드는 체크 패턴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바버리를 필두로, 일렉스터 맥퀸, 베르사체, 프라다, 구찌 등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 가지 체크 패턴이 아닌, 패턴과 컬러가 다양한 체크를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한 코디네이션이 주를 이루는 체크 패턴이 이번 시즌 메가 트렌드임에는 이견이 없다. 참고로 이번 시즌의 체크 트렌드를 제대로,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려면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체크 패턴을 믹스해야 한다. 상·하의를 모두 체크로 연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체크 재킷 & 체크 슈츠, 체크 팬츠 & 체크 모자처럼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체크 아이템을 두 가지 이상 믹스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Trend 2. Hiking Nomad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남자의 본능적인 욕망은 럭셔리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고급스러운 아웃도어 웨어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여행과 탐험이라는 주제에서 뺄놓을 수 없는 루이 비통을 포함해 구찌, 에르메네제초 제노, 프라다 등의 F/W 컬렉션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에 트레킹 부츠와 안락한 접매를 하나쯤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지금 막 상에서 내려온 듯한 트레킹 룩이 강세를 이뤘는데, 이는 할랄한 실루엣과 스타일링으로 1990년대 복고적인 분위기를 미묘하게 더하기 때문이다. MSGM, 마르니, 캐시미어, 퍼, 가죽 등 고급 소재를 접목해 어느 정도는 격식을 갖춘 록(루이 비통, 펜디, 에르메네제초 제노)으로 양분화되었다. 나아가 슈트, 정장 재킷 등의 포멀 웨어를 변형해 적용하거나 아웃도어적 디테일을 더해 활동성과 기능성을 높인 비즈니스 룩을 제안했다는 점도 신선한 변화다.

Trend 3. Home Run! 구찌의 2018 프리폴 및 F/W 컬렉션이 공개된 후 가장 화제가 된 아이템은 다른 어떤 MLB 베이스볼 캡이었다. 아메리칸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MLB 모자에 구찌 로고와 상징적인 자수 디테일을 더했으니 패션과 스포츠를 모두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게다가 스포츠 웨어에 볼 캡을 더하는 뻘한 공식이 아닌 롱 코트나 재킷에 매치하는 명민한 스타일링으로 신선함을 보여주었으니 반응이 가히 폭발적인 수밖에. 스트리트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베트멍,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나 조바살리아는 볼 캡을 리웨이브에 등장시킨 것을 넘어 자신만의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판매 수익으로 에너지 바를 기부하는 볼 캡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칫 잘못하면 10대의 룩으로 보일 수 있는 캡 모자를 하이패션에 맞게 보다 럭셔리하게 풀어낸 브랜드는 펜디다. 미니멀한 캡 디자인에 나일론, 가죽, 코듀로이 등 다양한 소재를 믹스해 럭셔리한 볼 캡을 탄생시킨 것. 특히 슈트에 볼 캡과 스니커즈를 매치한 룩은 비즈니스 웨어의 틀을 깨,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스타일링이다.

Trend 4. High Teen 이 페이지 왼쪽, 다음 음모의 룩을 확인해보자. 할랄한 데님 팬츠에 스니커즈, 큼직한 스웨트셔츠, 길게 늘어뜨린 벨트까지,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 바로 1990년대를 주름잡고, 그 당시 우리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 아닌가? 이번 1990년대 레트로 무드는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를 열광시키는 패션 코드로 화려하게 컴백해 하이패션의 무대까지 레트로와 젊음이 어우러진 터닝이져 스타일로 탈바꿈시켰다. 다음 음모 2018 F/W 리웨이브 현장은 소장 지체를 1990년대 청소년의 방식에서 불법한 장식으로 꾸민 것은 물론, 실제 1990년대를 평정한 슈퍼모델들과 차세대 모델들이 함께 등장해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을 위한 뉴 룩을 제시했다. 이처럼 패션 피플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다양한 레트로적인 요소를 유스 컬처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럭셔리 하우스의 움직임은 다음뿐만 아니라 루이 비통, 발렌시아가, 프라다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Trend 5. Invest in a Shearling 울거울 당시에 투자해야 할 아우터는 패딩이 아닌 사야링 퍼, 즉 양피 코트다. 물론 아웃도어 룩과 스트리트 패션의 강세로 패딩 역시 트렌드 전선을 지키고 있지만, 여자가 봐도 탐날 만큼 우아하고 이롭기까지 한 에르메스의 사야링 코트를 본다면 패딩 대신 사야링 코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슬림해 보면서도 클래식한 스타일을 연출하려면 기장이나 긴 코트를, 보다 경쾌한 무드로 젊은 감성을 더하고 싶다면 피코트나 바이커 스타일의 오픈 피트 코트를 선택하자. 이 모두 포멀한 슈트에는 물론 캐주얼 룩, 심지어 스포츠 웨어에도 잘 어울리는 데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클래식하고 남성적인 멋을 발산할 테니, 사실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셈이다. 이번 시즌, 대를 물려도 좋을 정도로 가치가 평생 지속될 인생 양피 코트를 만들고 싶다면 에르메스를 포함해 벨루티, 살바토레 페라기모, 바버리, 루이 비통, 보티가 베너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rend 6. High Brown 이번 시즌 남성 컬렉션의 키 컬러인 브라운을 두고 많은 외신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Brown is New Navy(브라운은 새로운 네이비 컬러다)', 이는 남성들의 룩에서 에센셜 컬러로 꼽히는 네이비를 대체할 새로운 컬러가 바로 브라운 컬러라는 뜻이다. 거의 모든 패션 하우스에서 브라운을 키 컬러로 내세웠는데, 컬렉션 전반을 브라운 계열로 물들인 루이 비통을 대표로, 에르메스, 살바토레 페라기모는 타임리스한 아이템에 브라운 컬러를 더해 클래식한 맛을 강조했다. 보다 젊은 감성을 기미한 브라운 컬러 코디네이션은 실루엣이 여유로운 피코트가 돋보이는 에르메제초 제노의 룩을 참고할 것. 좀 더 웅기 있게 브라운 컬러를 즐기고 싶다면 브라운 슈트로 눈을 돌릴 때다. 이때 원단 자체가 패턴을 더한 것을 고르거나 핑크, 블루 등 대비되는 컬러의 타이니셔츠로 포인트를 주면 브라운만큼 세련된 컬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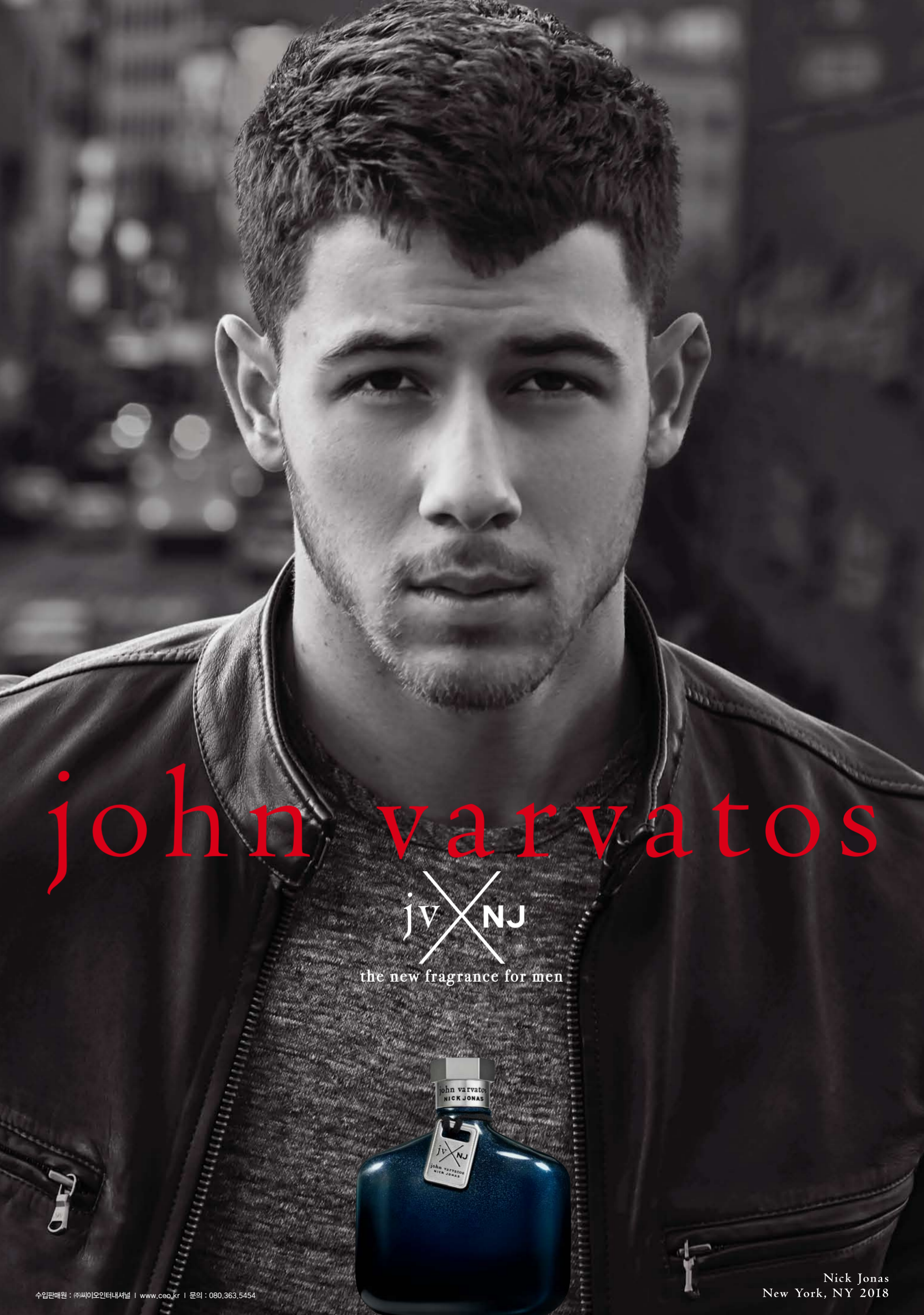
Trend 7. Logo Mania 1990년대 이후 브랜드의 유산이 이토록 드라마틱하게 빛나던 때가 또 있었단가. 로고 아이템은 이젠 과시를 위한 상징물이 아닌, 과감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밀레니얼 패션의 새로운 언어이자 위트를 더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로고만으로도 브랜드의 가장 큰 자산이자 현재 가장 뜨거운 트렌드인 것. 펜디는 이번 시즌에도 FF 로고를 여성복에는 물론 남성복에서도 주요 패턴으로 등장시켰다. 다양한 카테고리에도 로고를 가득 채우고, 여기에 FF의 가치를 알리는 키워드인 family(가족), freedom(자유) 등의 레터링을 더해 로고가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유행 앞서는 아이콘임을 여성화 드러냈다. 루이 비통 역시 다양한 로고 디자인으로 스트리트 감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동시에 풀어냈으니, 여기서 분명히 것은 젊고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원한다면 지금 가장 핫한 로고 패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 에디터 권유진



Hiking Nomad_Louis Vuitton
Check Point_Burberry
Home Run_Gucci
High Teen_Dior Homme



Invest in Shearling_Hermès
High Brown_Ermenegildo Zegna
Logo Mania_Fendi



john varvatos

jv x nj

the new fragrance for men



Nick Jonas
New York, NY 2018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글레드보 보에 사나티프 크림** 텍스처, 효과, 향, 가격까지 하이엔드 코스메틱의 끝을 보여주는, 글레드보 보에의 최상위 라인인 사나티프에서 선보이는 크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브랜드의 VIP 고객들이 사랑하는 제품이다. 독자적인 성분인 MACC-PD와 전 방향 리프팅 콤플렉스 성분 등이 제품의 핵심으로,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 비대칭 지형세포를 정상화하고 진피의 피부 지지력을 회복시켜 페이스 라인을 탄력 있게 만드는 것은 물론, 주름, 디스처를, 축적된 피부 톤 등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고민을 모두 해결해준다. 효과와 더불어 사용감 역시 럭셔리 크림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우아한 향을 담은 길어감 있는 메이크업 크림이 피부에 녹아들 듯 끈적임 없이 스며들어 마치 고급 스킨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은 것처럼 피부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40ml 1백60만원대. 문의 080-564-7700

캘린 아이비 로얄 더블 R 세럼
캘린의 상징이자 자구상에 현존하는 고귀한 성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위상 블랙비 로열젤리를 동북 함유한 인터에이징 세럼. 피부 광채와 탄력을 동시에 채워주는 두 가지 포뮬러와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하나의 세럼으로 두 가지 효과를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다. 광채 세럼에 적용한 소프트-필 테크놀로지가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을 제거해 피땀결을 부드럽게 개선해 피부 본연의 광채를 살린다. 탄력 세럼은 유네스코가 지정된 생대 보존 지역인 프랑스 브리타니 해안의 위상성에 서식하는 희귀 꿀벌인 블랙베에게서 채집한 유효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탄력을 부여한다. 특히 캘린만의 블랙비 테크놀로지는 피부 개선과 콜라겐 함량에 관여하는 주요 성분으로, 고르게 작용해 피부를 더욱 쫄깃하고 탄탄하게 케어한다. 50ml 282천4천원. 문의 080-343-9500

더 하스토리 오브 후 환유 동양의학에서는 약재로도 사용하는 귀한 동충하초 발효 성분은 산상의 모든 영양분을 품은 천연 전초산성으로부터 뿌리까지 온전한 산상의 완전체 성분을 더해 피부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피부를 위한 보타 크림, 군악 성분 중 피부의 기를 담당하는 진초 성분을 핵심으로 하고, 율기가 강한 송로버섯, 복령, 감초 등 진유한 70여 가지의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 인박의 근본을 다스린다. 보양으로 몸의 체력을 관리하듯 피부 컨디션이 저하되었을 때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60ml 75만 원. 문의 080-023-7007

다들 프레스티지 리프팅 크림 이오 다들 하우스의 프라미엄 스킨케어에 관한 함유된 고귀한 로즈드 그라비의 놀라운 생장력을 담은 프라미엄 아이 크림. 피부에 끈적임 없이 녹아드는 감각적인 밤 타임 포뮬러와 진통의 테크닉에서 영감을 받은 오픈-이이™ 애플리케이터가 아이 케어 이상의 럭셔리한 리추얼을 선사한다. 눈가에 잔주름 크기를 바르면 후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해 지압하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착한 눈가가 굳어지지 않고 눈 주위 피부가 속속히 푸르거니 탄탄하게 해, 꾸준히 사용하면 눈가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눈 주위가 또렷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15ml 22만원대. 문의 02-3438-9529

라프라리 스킨 케어 리스 크림 피어미 럭셔리 크림의 대장인이자, 라프라리가 지난 독보적인 케어만의 특별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피어미 크림. 라프라리의 상징적인 크림인 만큼 바르는 순간 영감같이 풍부한 크림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보습력과 함께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는 끈적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돋보인다. 생장공학 연구로 개발된 복합 성분인 인스클루시브 셀룰라 콤플렉스가 피부 건강의 관건이 되는 피부 세포에

활력과 생기를 더해주고, 풍부한 케어 성분인 피부 장벽과 밀도, 톤을 개선해 탄력 넘치는 유연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100ml 1백12만원대. 문의 080-511-6626

사슬리 시슬리아 탭데그할 앙티아주 퍼밍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사슬리 연구소의 생물학 & 후생유전학 연구 기술을 접목해 세포 단계에서 발현되는 노화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인터에이징 퍼밍 세럼. 페르시아 아카시아, 린데라 추출물, 콩 추출물, 아스트 단백질 콤플렉스, 마조라 추출물 등을 결합한 독보적인 핵심 활성 성분인 피부 탄력을 좌우하는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속 깊이 긴장감을 부여해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더한다. 더불어 구리 씨 추출물의 3D 텍스처 효과로 바르는 즉시 즉각적으로 피부가 쫄깃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0ml 53만원. 문의 080-549-0216

사슬리 리프트 크림 사슬리의 럭셔리 탄력 크림인 리프트 크림의 2018년 업그레이드 버전. 브랜드 최초로 95%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더욱 자신감을 드러낸 제품이다. 천 년의 식물이라 불리는 프랑스 알페르가 핵심 성분인데, 이는 마늘, 미강원소,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피부의 세포 증식을 촉진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섬유아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발휘한다. 또 기존 제품에 함유된 애플리콜린 추출물에 사슬리를 더해 피부 노화의 징후를 더욱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실제 임상 실험 결과, 주름이 25% 감소하고, 피부 탄력과 광채가 각각 10% 증가했다. 산뜻한 크림 타입과 긴장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크림 리치, 두 가지 타입으로 선보인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50ml 21만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most Precious

1백만원을 호가함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럭셔리 코스메틱의 저력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첫 느낌에서부터 남다른 과시한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이는 없다는, 알만한 사람들도 아는 최상의 뷰티 케어, 프리미엄 코스메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세탁 스타일링 박주영



tribute to Femininity



시대를 초월한 주얼리의 아름다움과 섬세함. 감동, 그 이상을 자아내며 잠시 시간을 잊게 만들었던 불가리의 빛나는 전시회, 불가리의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Tribute to Femininity)> 전시가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에서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불가리,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다

9월 7일,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에서 <불가리,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BVLGARI, Tribute to Femininity)> 회고전이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제작된 5백 점 이상의 주얼리를 통해 1백 년 넘게 이어져온 불가리. 이 대답한 창조성과 특별한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크렘린 박물관은 러시아와 해외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특별한 오브제 16만 피스 이상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보물 중 12세기에서 20세기에 제작된 1만3천2백여 점의 러시아 주얼리 걸작은 상상전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주얼리를 전시하는 특별 전시 몇 차례 열리기도 했다. 불가리의 이번 전시는 크렘린 박물관의 권위와 주얼리 역사의 남다른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풍성하고 가치 있는 전시회다. <불가리,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전은 불가리의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작품, 그리고 여성 해방과 함께 찾아온 여성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달라진 취향이 어떻게 연결되며 변화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얼리들은 개성을 표현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현대 여성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대담한 컬러와 디자인, 과감한 원석 선택 등은 곧 그 시대의 여성이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불가리의 매력적인 상징이 되었다. 불가리에 있어 여성은 곧 트렌드이자 스타일이다. 여기에 더불어 이러한 특유의 유쾌함과 따뜻함은 불가리의 주얼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매종 불가리는 이처럼 시대, 패션 트렌드 등과 관련을 맺으며 등장했다. 불가리의 주얼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화려함과 럭셔리한 분위기를 발산하면서도 그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늘 착용하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크렘린에서 전하는 불가리의 파인 주얼리 작품들은 귀족부터 영화배우에 이르기까지, 사교계 명사부터 비즈니스 여성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또 당대의 저명한 사진가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 여성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포착한 많은 사진을 함께 전시해 매종 불가리의 역사가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가리를 사랑한 전설적인 영화배우들의 열정을 반영한다. 이번 전사를 위해 엘리자베스 테일라가 소유했던 불가리 헤리티지 칼렉션 전 피스가 공수되어 그뿐만 아니라 컬렉터로서의 심미안을 엿볼 수 있었다. 에미스트, 터키즈, 코랄, 였스, 라피스 라зу리, 칼세도니, 밀라카이트 등과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등의 프레셔스 스톤을 함께 세팅한 주얼리들은 강렬한 컬러로 불가리의 끊임없는 열정을 담았다. 그리고 불가리는 펠트, 그리고 1970년대에는 가장 방탕한 시대의 이국적인 트렌드에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전시의 또 다른 색채에서는 주얼리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 불가리의 창조성을 상징하는 이이론들도 선보인다. 불가리의 첫 모듈 칼렉션인 파렌티지(Parentesi) 컬렉션은 불가리가 강렬한 하나의 디자인 요소를 어떤 식으로 무한하게 확장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투보 가스(Tubogas) 모티브의 유연한 밴드 역시 기본적인면서 세련된 우아함을 지녀 다양한 의상이나 상황에 완벽하게 어울린다. 로미 뿌리를 재해석하는 고대 동전을 활용한 1970년대 디자인을 통해 과거를 향한 애종의 경의를 전한다. 1970년대 탄생해, 로고 마키아의 혁신적 선구자가 된 불가리 불가리(BVLGARI BVLGARI) 역시 불가리의 창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진화해온 치명적인 매력의 세르펜티(Serpenti)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여 현대 불가리의 정점을 찍는다.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던 불가리 하이 주얼리의 세계, 여성에게 바치는 불가리의 진정성 있고 아름다운 헌사는 불가리가 앞으로 더욱 진화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한다. 그 매력의 세계를 경험하는 건 여성들의 특권이고, 그 특권을 충족시키는 건 매종 불가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므로, <불가리,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전은 2019년 1월 13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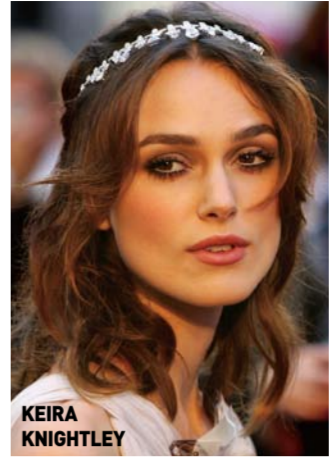
1 모스크바의 크렘린 박물관 성모승천 중부와 총 대주교 궁전 지상층에서 개최 중인 불가리 주얼리 전시회. 내년 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2 사물상과 자신감 있는 여성을 표현한 모스크바 불가리 전시회 포스터. 3 불가리 회고전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왼쪽부터) 크렘린 박물관의 제-쿠알 디레타 알레나 카가리나, 불가리 CEO 장 크리스토퍼 바벳, 불가리 브랜드 헤리티지 큐레이터 루치아 보스카기나. 4 플라미니오 골드에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1967). 불가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컬러 조합 중 하나인 레드, 그린, 블루를 담았다. 5 플라미니오 골드에 다이아몬드, 루비를 세팅한 보르치(1987). 낮과 밤까지 도드라져 보이는 펠트 하이 주얼리를 탄생시켰다.



1 플래티넘과 골드 소재에 에메랄드, 에메랄드, 터키즈,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네크리스(1965). 이 네크리스는 현대 미국 사교계 명사이자 레브론(Revlon) 창립자이기도 한 찰스 레브론(Charles Revson)의 아내 린 레브슨(Lyn Revson)이 소유했다. 2 플래티넘에 이리온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타이머(1935). 귀족 신분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타이머를 결혼식 때 착용했다. 3 21캐럿의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2개와 26.5캐럿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67개를 세팅한 이어링, 지나 롤로브리гада(Gina Lollobrigida)는 볼가에서 1964년 구입한 이 이어링을 무척 사랑했다. 4 골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시트린, 핑크 투르말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1991). 로마의 산탄젤로성(Saint Angel Castle) 유적지의 5각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이 네크리스는 볼가리 고유의 로마 모티브에 잘라붙힌 타워를 기이한 기교 넘치는 재해석을 보여준다. 5 20세기 전설의 이탈리아 애배우 안나 마그나니(Anna Magnani)가 소유했던, 플래티넘에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해리저 브로치(1950년대). 6 골드 에메랄드와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1989). 불륨 감 넘치는 라운드 형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카보숑 것의 예술적 진화를 보여준다. 50개의 에메랄드를 곡선 형태로 카빙하고 가장자리에 루비를 정교하게 세팅해 페이즐리 모티브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CLAUDIA SCHIFFER



KEIRA KNIGHTLEY



OLIMPIA TORLONIA



INGRID BERGMAN



GINA LOLLOBRIGIDA



VALERIA GOLINO



ANNA MAGNANI



AMANDA WELLSH



ELIZABETH TAY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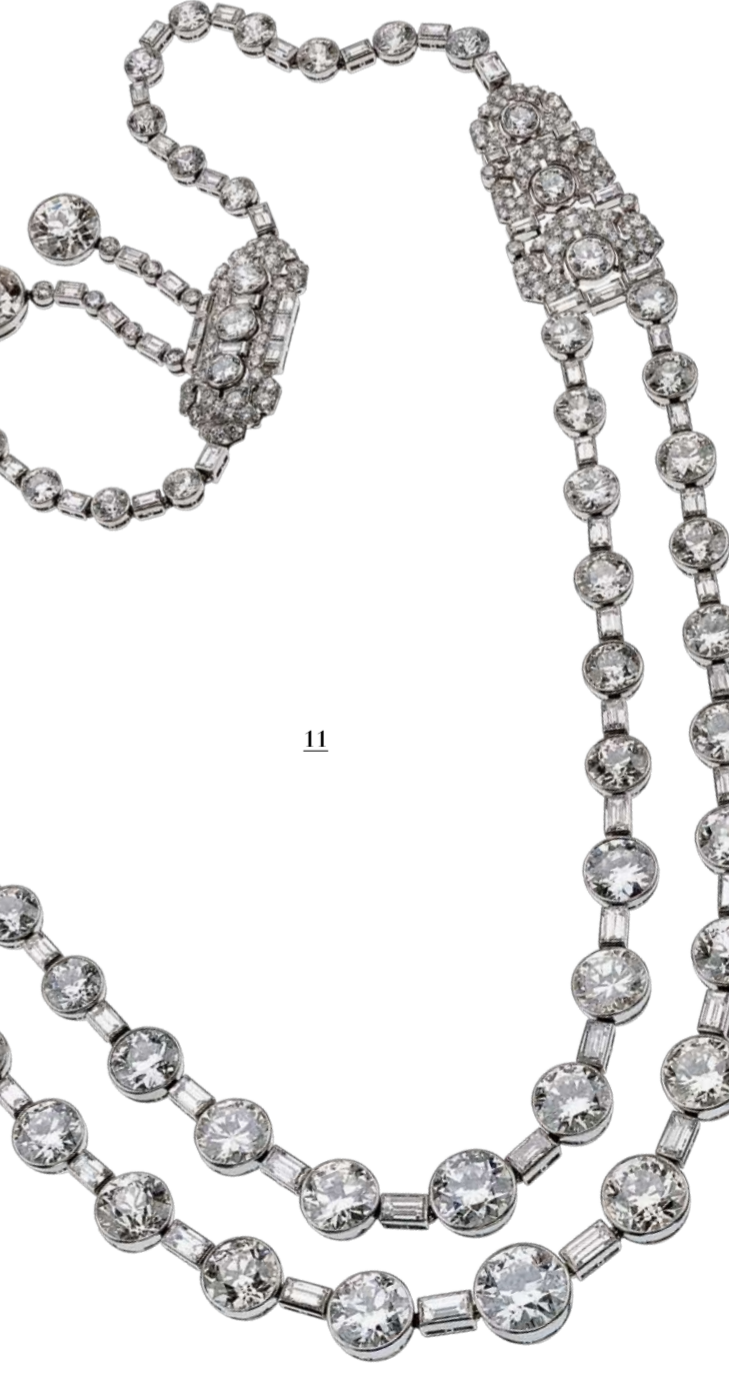
JENIFFER ANISTON



NAOMI CAMPBELL



7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컴 타이머(1935). 이 네크리스는 머리 위에 올리면 타이머로 변신한다. 바깥쪽 커트 다이아몬드의 패배 다이아몬드의 조합이 더욱 강력한 반짝임을 더한다. 8 골드 소재에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1970). 펜던트에 자그마치 3백캐럿의 에메랄드를 세팅한 소프와 네크리스로, 1970년대 카프란, 엑시 팬츠, 극동 지역 에 대한 로망 등이 키워드가 된 맥사-패션 트렌드를 반영했다. 9 세계적인 이탈리아 애배우 지나 롤로브리гада가 소유했던, 플래티넘에 핑시 옐로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총 2백67캐럿)를 세팅한 해리저 브로치(1960년대). 10 골드와 비스킷 골드 코인, 다이아몬드 완성한 네크리스(1975). 11 플래티넘에 1백37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1930). 1백3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순수함의 장점을 보여주는 이 네크리스는 1930년대 전형적인 아르데코 스타일의 특징인 기하학적 우아함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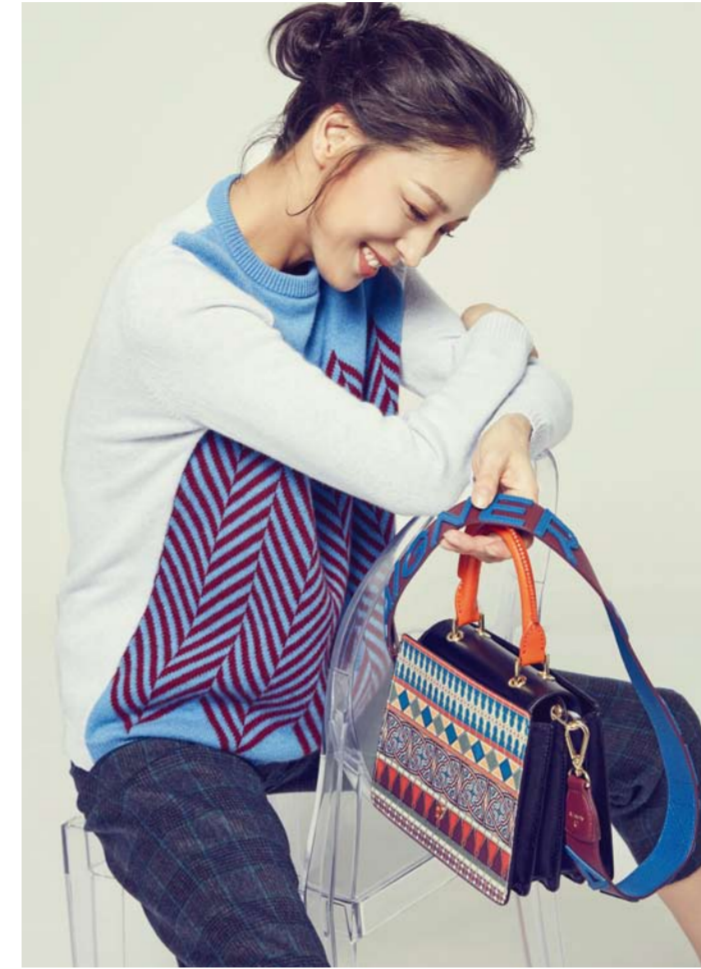


Delightful Acts

왕족들의 진귀한 물건을 모아둔 비밀스러운 공간, '호기심의 방 (Wunderkammer)'에서 영감을 받은 감미로우면서 툭툭 튀는 패턴과 컬러, 아티스틱한 모티브를 반영한 아이그너의 2018 F/W 컬렉션과 배우 한고은의 유쾌한 만남.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가득했던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photographed by zo sun hi



벨티드 디테일의 블랙 베스트 2백45만원, 태강을 형상화한 금속 장식 포인트의 다이도라(Diadora) 백 1백39만원 모두 아이그너.



지그재그 스트라이프 패턴의 캐시미어 니트 1백35만원, 니트 또는 코트 위에 실용적으로 레이어드할 수 있는 케이프 1백25만원, 체크 패턴 맨주 99만원, 컬러풀한 에스닉 패턴이 돋보이는 알리아(Alia) 백 1백69만원 모두 아이그너.



로맨틱한 핑크 색상의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 캐시미어 니트 1백56만원, 핑크 팬츠 1백5만원, 곱을 때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태슬 장식의 포인트인 롤리(Lola)백 99만원 모두 **아이디너**.

머플러와 함께 세트 구성된
오프 화이트 컬러의 캐시미어 니트
1백69만원, 베이지 팬츠 1백5만원,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레오파드
송차/죽 플랩 디자인의 제이다(Jeda)백
3백29만원 모두 **아이디너**.





어느 룩에나 멋지게 어울릴
그레이 컬러 구스다운 패딩
2백35만원, 그레이 터틀넥
캐시미어 니트 윌피스 1백39만원,
오실롯(ocelot) 모티브 가죽 파우치가
인상적인 라군(Lala) 백
1백69만원 모두 **아이디너**.

헤어 **이소영**(제니퍼유스)
메이크업 **김자영**(제니퍼유스)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주영**
스타일리스트 **선화정**
어시스턴트 **김은서**
에디터 **이지연**



화이트 터틀넥 니트 1백19만원, 베이지 팬츠 1백5만원, 민크 트리밍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체크 하프 코트 3백5만원, 가을 룩과 잘 어울릴 버건디 컬러의 캐롤(Carol) 백 1백15만원(스카프 별도) 모두 **아이디너**, 문의 02-531-217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래식한 체크 패턴의 오버사이즈 남성 트렌치코트 2백49만원 **드리스 반 노른 by 본다삼**, 가죽을 엮어 체크 패턴을 형상화한 사이드 포켓과 스트랩이 매력적인 가죽 백백, 25x45cm, 5백46만원 **보타가 베네타**, 나일론 소재의 체크 패턴 피우치 겸 클러치 56만원 **프라다**, 바버리의 오리지널 체크 패턴을 다한 바이 폴드 지갑 45만원 **바버리**, 익살스러운 일러스트와 체크 패턴의 조화가 유니크한 클러치, 34x23cm, 28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세련된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베이비 캐시미어 머플러 1백30만원 **로로피아나**, 시어링 피로 포인트를 준 빈티지 체크 여성 슬라이드 슈즈 77만원 **바버리**, 깔끔 컬러로 구성된 체크 패턴으로 롱에 유틸을 더해줄 남성 레이스업 슈즈 1백18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타일링: 유영영, 이소은, 김은하

Check, please

클래식을 대표하며 타임리스한 패턴으로 사랑받는 체크. 이번 시즌, 레트로 무드와 함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귀환한 체크 패턴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빈티지 무드를 담은 핑크 컬러의 여성 체크 코트 3백55만원 **미우미우**, 다양한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스몰레토 힐 1백36만원, 레드 컬러를 믹스한 타탄체크가 돋보이는 캔오이 백 18x25cm, 2백99만원 **모두 렌디**, 바버리의 이코닉한 체크 패턴으로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를 살린 스몰 빈티지 체크 D링 백, 20x16cm, 1백98만원 **바버리**, 시퀀스다운 체크 패턴으로 산뜻함을 다한 주얼 포인트의 플랫 슈즈 1백69만원 **마닐로 블러너**, 타탄체크 포인트의 슬링 백 슈즈 97만원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로고 디테일과 체크 패턴이 조화를 이루는 베이스볼 캡 16만2천원 **MSGM by 한스타일**, 양코의 골드 체인 장식이 특징인 레드 체크 여성 레이스업 슈즈 1백30만원 **N21 by 한스타일**, 에디터 권유진

- 미우미우 02-3218-5331
- 렌디 02-2056-9023
- 바버리 080-700-8800
-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 비비안 웨스트우드 02-6905-3707
-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 마닐로 블러너 02-3443-2113
- 로로피아나 02-546-0615
- 한스타일 02-517-4789
- 본다삼 02-3444-3300
- 프라다 02-3218-5331



● sponsored by FABIANA FILIPPI



Refined luxe

배우 김남주가 밀라노를 찾았다. 지난 9월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가 새로운 밀라노 본사를 공개하면서 2019 S/S 컬렉션을 선보였기 때문. 장인 정신과 전통, 페미닌한 실루엣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파비아나 필리피와 김남주의 스페셜 모먼트.

여배우 김남주, 파비아나 필리피를 만나

이번 시즌 모든 도시의 패션 컬렉션 현장은 셀러브리티의 방문으로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지난 9월 20일에 열린 파비아나 필리피의 밀라노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석한 배우 김남주. 해외 컬렉션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여배우에게 밀라노에 등장한 김남주의 모습은 미디어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로 밀라노 컬렉션 현장을 사로잡으며 한국 대표 셀러브리티이자 패션스타, 파비아나 필리피를 사랑하는 여성으로 자리를 빛낸 김남주는 네크라인을 펠로 장식한 캐시미어 니트와 시퀀 포인트의 펜슬 스커트를 매치해 특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에 우아함과 카리스마를 더한 에티튜드로 모두의 시선을 모은 것. 김남주가 방문한 프레젠테이션 장소는 포르타 로마나 중심부에 위치한, 새롭게 오픈한 파비아나 필리피의 밀라노 본사. 브랜드에서 본사 건물을 개관한 것은 매우 큰 변화다. 정밀 보수 작업으로 1939년에 지은 콘크리트 빌딩에 독창적인 화려함을 부여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았다. 이 새로운 장소에서 선보인 2019 S/S 컬렉션은 마다가스카르 북동부에 위치한 생트마리섬의 한적한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다. 자연의 밝은 색감과 바다의 녹색, 고운 모래의 금색, 황홀한 석양 빛까지, 자연의 우아함을 가득 담은 이번 컬렉션에는 파스텔 톤의 잔잔한 꽃무늬가 라벤다에서 노란색에 이르기까지 깊이 물들어 있으며,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프린트로 세련된 보타니컬 패턴을 선보였다.

움브리아, 우아함의 근원지

여배우 김남주는 밀라노를 방문하기 전에 파비아나 필리피의 뿌리가 있는 본고장인 이탈리아 중부 지역 자노 델 움브리아(Giano dell'Umbria)의 본사를 찾았는데, 이곳에서 CEO 마리오 필리피 코세타(Mario Filippi Coccetta)와 대화를 통해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전통에 대한 영감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다. 파비아나 필리피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자노 델 움브리아는 전통적 직물 산업으로 유명한데, 이탈리아의 우수한 니트웨어 브랜드 중 다수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해 큰 성공을 이루었으며, 파비아나 필리피도 마찬가지다. 브랜드 특유의 우아한 컬러와 자연스러운 실루엣은 모두 이 고장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컬렉션 역시 움브리아의 숨결이 느껴진다. 섬세한 텍스처와 피부를 감싸는 고귀한 패브릭의 가치는 이탈리아 브랜드, 그리고 니트웨어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지닌 움브리아 지역에서 출발한 파비아나 필리피만의 특별한 요소다. 올해로 전 세계 36여 개국의 취향이 우아한 여성을 대변해온 파비아나 필리피가 밀라노 본사 개관을 새로운 도약으로 삼아 더욱 멋진 에티튜드를 선보이기 기대해본다. 문의 02-6960-0831 에디터 이지연

1, 2 지난 9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파비아나 필리피 2019 S/S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현장. 3 파비아나 필리피 밀라노. 쇼룸을 직접 방문한 배우 김남주. 4 특유의 우아한 실루엣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파비아나 필리피의 2019 S/S 뉴 룩. 5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파비아나 필리피 쇼룸 내부. 6 깃털 퍼트리온 소재가 돋보이는 재킷. 7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노리그램의 양귀족 워커 부츠. 8 스카프와 시어링 소재가 어우러진 미니 백.



modern Grey

취향, 신념, 매력, 애티튜드까지. 브랜드 가치는 단 한순간에 많은 것을 드러낸다. 신제품 향수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는 남자의 신중한 선택이 얼마나 강렬한 매력을 표현하는지 보여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섬세한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

과연 어떤 남자가 이 로고를 거부할 수 있을까, 선물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향수 컬렉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기에 새로운 컬렉션이 꾸준히 출시된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향수인 메르세데스-벤츠 맨의 후속으로 선보이는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는 모던하고 카리스마 넘쳐 보이지만 섬세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지닌 남성성을 표현한 신제품 향수다. 강렬한 벤츠의 삼각 별 로고가 돋보이는 매트한 그레이 컬러 보틀, 그 안에 담긴 멋진 향기는 걸음소리만으로 충분히 완성도를 상상할 수 있다. 뛰어난 브랜드의 로고를 전면에 담은 제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가치를 쉽게 잃지 않는다. 이처럼 벤츠라는 브랜드가 지닌 탁월한 가치를 향기로 표현한다. 향수 보틀을 보면 세련되고 완벽한 모습이 현대적인 강인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투명한 향수는 따뜻한 포용력을 지닌 부드러운 매력을 갖추고 있다. 보틀을 열기마자 느껴지는 베르가모트와 핑크 페퍼의 향기는 상쾌한 시적을 알린다. 뒤이어 세이지의 표근향이 느껴지는 미디엄 노트는 자연스럽게 코끝을 감싼다. 럭셔리한 남성 향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앰버우드와 머스크가 마지막 진함을 책임지는 탄탄한 향기의 구성은 이를 뿌린 남자의 뒷모습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든다.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를 탄생시킨 조향사 올리비에 크레스프는 우디와 머스크를 중심으로 우디 프레스시 계열의 향수를 만들어 중독적인 매력을 표현했다. 뛰어난 지속력도 이 향기의 미덕 중 하나다. 벤츠 고유의 강렬한 로고 디자인 덕분에 차량 안이나 데스크 위에 두었을 때 인상적인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셀 수 없이 다양한 향수가 등장하는 지금, 유니크한 남자를 위한 선물, 혹은 까다로운 남성도 만족할 향수를 찾고 있었다면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가 좋은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50ml 6만9천원, 100ml 9만5천원. 문의 02-3443-1805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Mercedes-Benz

mastering Caviar

럭셔리 스킨케어의 지평을 연 라프레리의 스킨 캐비아 컬렉션은 벌써 3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클래식이었다. 올해 클래식 크림을 리마스터링한 스킨 캐비아 럭스 크림 프리미어를 다시금 선보이며 과학과 예술을 담은 진정한 마스터피스 가치를 보여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진정한 럭셔리 스킨케어, 스킨 캐비아 럭스 크림 프리미어

푸아그라, 송로버섯과 함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진귀한 철갑상어의 알, 캐비아 성분은 담고 있는 라프레리의 스킨 캐비아 라인은 1987년 탄생하며 초고가의 크림의 시초이자 럭셔리 뷰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최고의 뷰티 브랜드인 라프레리의 가치를 만든 컬렉션이기도 하다. 이 브랜드의 핵심이 되는 시그니처 라인의 오랜 인기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효과 때문인데, 이를 업그레이드해 올해 스킨 캐비아 컬렉션의 핵심 아이템인 크림과 쉬어 크림, 슬립 마스크를 프리미어 라인으로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인다. 처음 선보인 캐비아 성분을 담은 캐비아 워터, 그 이후 발전을 거듭해 탄생한 캐비아 앰슬루트, 그리고 올해 더 발전된 과학을 적용한 캐비아 프리미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캐비아의 효과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이 과학적 성취는 치열이 다른 리프팅과 피임 효과를 가져왔고, 오래도록 스킨 캐비아 컬렉션을 사랑한 고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화장품 스펀지에 까다로운 라프레리의 오랜 고객들은 스킨 캐비아 라인이 알아진 피부, 탄력을 잃고 힘을 잃어 가는 피부에 확실하고 빠른 효과를 준다고 확신한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은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미이며 전 라인이 모두 고르게 판매되는 것은 핵심 성분인 캐비아가 그만큼 신뢰도 높은 성분이라는 증거다. 이 스킨 캐비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바로 크림이다.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를 통해 추출한 캐비아 성분은 피부 장벽과 피부 밀도, 피부 톤을 개선해주고 탄력 있고 유연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 얼굴을 감싸는 기층 있는 항기와 아름다운 패키징, 소량으로도 피부에 잔주알을 골리듯 매끄럽게 스며드는 텍스처는 다시 한번 라프레리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이들이라도 한번 사용해 보면 피부결과 탄력의 변화에 역시 라프레리라는 감탄을 하게 된다. 로션과 세럼의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이 크림은 보다 가벼운 텍스처의 스킨 캐비아 럭스 크림 쉬어 프리미어로도 만날 수 있다.

궁극의 뷰티 슬립, 스킨 캐비아 슬립 마스크 프리미어

캐비아의 효과를 더 집중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슬립 마스크를 더하면 된다. 럭셔리한 뷰티 루틴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스킨 캐비아 슬립 마스크 프리미어는 낮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궁극의 나이트 뷰티 아이템이다.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한 후, 불과 이마에 슬립 마스크 프리미어를 소량 도포해 함께 들어 있는 브리시로 얼굴 전체에 퍼 바른 후 다음 날 아침 가볍게 세안하면 된다. 이 제품을 사용한 여성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바르는 순간 얼굴 전체를 마치 코르셋을 입은 듯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다음 날 아침 확연히 다른 피부결을 눈과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에 1~3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팽팽해진 듯한 피부 컨디션이 완상되는 것. 캐비아 성분은 물론 라프레리가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로 개발한 복합 성분인 알스클루시브 셀룰라 콤플렉스까지 담겨 있어 피부 세포에 활력과 생기를 더하는 것. 바르는 즉시 피부 깊숙이 스며들고, 크림에 더해 사용하면 시나지를 느낄 수 있다. 라프레리를 꾸준히 사용하면 창문등에 위치한 라프레리 스킨에서 캐비아 컬렉션의 모든 제품을 사용해서 제공하는 특별한 트리트리먼트를 경험할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문의 080-511-6626 에디터 배미진



(위부터) 스킨 캐비아 럭스 크림, 쉬어 프리미어 각 50ml 6만7천원, 스킨 캐비아 슬립 마스크 프리미어 50ml 47만원.

● sponsored by la prairie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티블〉가 제안하는, 완전한 가을을 만끽하게 해줄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세이도 아이덴티티** 클리어 어저리엔 한 번쯤 써보았을 시세이도 뷰티. 단 한 번의 터치로도 속눈썹 뿌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며, 자연스럽게 컬링되기 때문. 여기에 마스크라를 덧바르면 더욱 도톰하고 긴 속눈썹 연출이 가능하다. 1만8천원. 문의 02-555-8839. *by 에디터 이지현*

마바 이온칼슘 파운데이션 더블 쿠션 유명 여가수가 사용해 품질 대안을 일으킨 쿠션 팩트. 시중 쿠션 대비 2배 용량인 큼직한 크기로, 두세 번만 두드리면 초스피드로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질은 집에도 깨끗하게 커버할 정도로 커버력이 뛰어나며 메이크업 홀가닥이 40시간 동안 유지된다. 24g 3인 9천원. 문의 1688-2878. *by 에디터 권유진*

시슬리 르 워드 루즈 매력적인 질감과 함께 스킨케어 효과까지 겸비한 럭셔리 립스틱. 그간 스킨케어 라인에만 사용하던 하이드로 부스터 콤플렉스와 천연 오일 성분은 립스틱에 더해 8시간 동안 수분을 유지시키고 에센셜 인슐린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립스틱 단면을 비스듬하게 케팅해 입술 라인을 따라 바르기 쉽게 고안했다. 특히 추천하는 컬러는 입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핑크 계열인 23호 벨라다. 3.4g 5만8천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권유진*

맥 대들 세도우 리프트 블링킹 브릴리언트 한눈에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킬 영롱한 리프트 글러시 세도. 눈가를 위해 비즈자이더 마지 자신의 피부인 듯 얇고 가볍게 피팅되어 높은 밀착력을 선사하고, 비오는 즉시 빠르게 건조해 차를 바른 컬러와 글러시가 선명하게 유지된다. 특별한 날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제격이다. 4.6g 3만4천원. 문의 02-3440-2782. *by 에디터 이지현*

비야레도 알레벤스 어워 산뜻하면서도 유근하고, 친근하면서도 독창적인 향기로 나치 향수에서 품격 있는 브랜드로 거듭난 비야레도의 산뜻함 향수. 특 쓰는 듯 시트러스한 향기로 사르해 와이드 무화과의 달콤한 향기, 관능적인 우드 향으로 마무리되는 다양한 향기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연일을 위한 선물 아이템 리스트에 올려도 좋다. 50ml 18만원. 문의 02-3479-1888. *by 에디터 배미진*

프래쉬 블랙리 콤피우 피아셀 트리트리먼트 에센스 대용량으로 출시된 것이 매우 반가운 특별한 에센스. 피부 깊은 곳까지 촉촉함과 청량감을 더해주는 제품으로, 비타민과 유기산을 품은 강력한 콤피우 성분(이 유)과 확실한 피부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여러 번 덧칠라도 잘 스며들어 피부 건조를 확실하게 해결한다. 250ml 13만8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배미진*

로라 메리세 데블러쉬 클리어 인퓨전 진저 말린 실곶 등으로 한국 여성의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로라 메리세의 이 아이템 진저 클러기가 이세도 에 이어 불리기도 선보였다. 코르넬 오일 성분을 담아 피부에 상처지 않고 부드럽게 말려지며, 청순한 내추럴 콤피우 그윽한 가을 향까지 어여쁜 메이크업이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생기를 준다. 6g 4만원. 문의 02-564-0056. *by 에디터 이지현*

샤넬 레 조 드 샤펬 피라-베니스 비드로스 기념비적 샤펬이 가장 사랑했던 도스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보디 케어 제품. 샤넬의 시넬 텍스처 보티르센은 이미 많은 여성들에게 극찬받았었다. 향수의 진한 향기가 부딪스러온 여성에게 추천한다. 오라엔젤 향기의 매력을 담은 베니스 버전은 내륙의 에센스와 바닐라를 더해 관능적인 향기를 풍긴다. 200ml 8만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미진*

블가리 로즈 골데아 리미티드 에디션 블가리 향수 라인 중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로즈 골데아 향수가 세계적인 핼 아티스트 재기 차이의 아티스틱한 터치로 더욱 특별한 웃을 입었다. 블가리를 상징하는 세르펜티의 뱀 형상은 물론, 로즈 머스크의 향을 표현한 정미가 어우러진 보틀에는 고귀한 다이아몬드 로즈 인슐루트와 이자트산 재스민이 중심을 이루고, 피우다르한 마스크로 이어지는 매혹적인 향이 담겨 있다. 90ml 20만원. 문의 080-990-9889. *by 에디터 이지현*

슈퍼리 리치리치 샴푸 바 두피를 위한 비유러니 성분 차를 사용해는 형태의 샴푸라 반신반의했으나, 사용해 보니 무엇보다 지극 없이 부드럽고 깔끔한 세정력에 반했다. 실리콘을 포함해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일절 배제하고 EWG 안전 등급을 받은 자연 유래 원료를 사용해 두피 본연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100g 116천원. 문의 02-702-7940. *by 에디터 권유진*

데코르테 어드밴스드 아이피스 눈가와 눈썹 사이부터 이마와 입가까지 평소 노화되기 쉬운 피부의 예민한 부위를 케어해주는 스페셜 트리트리먼트 제품. 매일 아침 저녁, 스킨케어 단계에서 토너로 피부를 진정시킨 후 펠스 주름까지 쉬운 부위에 적당량을 부드럽게 펴 발라주면 주름과 잔피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 20g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지현*

달방 이코니믹 클렌징 밤 워드 로즈우드 피부 깊은 곳에 묻은 메이크업 노폐물을 끌어내는 마블러 오일을 함유해 마니니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클렌징 밤. 풀 같은 텍스처가 풀과 만나면 마치 우유처럼 애질성이 되어 얼굴 전체를 담 클렌징해준다. 자극 없이 부드럽게 피부를 정화해주는 마지니 효과 덕분에 유명하다. 꼭 한번 사용해볼 것 추천한다. 40ml 6만원. 문의 02-3479-6226. *by 에디터 배미진*

팬탈리온스 포트리프트 미스터 셀 팬탈리온스의 프리미엄 컬렉션인 포트리프트는 총 6개의 향수 각각에 개성 있는 캐릭터를 부여해 특별함을 과시한다. 그중 자유로운 남자를 표현한 미스터 셀은 씩씩한 사나이로 스타이시한 블랙 페퍼, 부드러운 바닐라와 시더우드가 조화를 이룬 따뜻하면서도 색다른 면모를 발산한다. 남성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표현했지만, 여자가 사용하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인 향수다. 75ml 37만원. 문의 02-3443-1805. *by 에디터 권유진*



SHOWROOM



프라다 리네아 로사 프라다는 하이패션에 최첨단 기술을 더한 리네아 로사 컬렉션을 공개했다. 1997년 탄생한 리네아 로사 라인을 새롭게 디자인한 이번 컬렉션은 아우터와 슈즈를 비롯해 스카와 스노보딩을 위한 스페셜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붉은 선으로 완성한 강렬한 로고 디자인이 돋보이며 초경량 나일론, 텔라 테크 니카 등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문의 02-3442-1830

브룩스 브라더스 MTM 패어 브룩스 브라더스는 10월 31일까지 MTM 패어를 진행한다. 브랜드에서 직접 산별한 최고급 원단과 함께인강, 단추, 라펠 등을 테일러의 상담과 치수 측정으로 선택해 본인의 맞춤형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본에서 섬세한 공정을 통해 제작되며 주문부터 완성까지 약 4~6주가 소요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특별 증정 이벤트도 개최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 것. 문의 02-2052-8822

파비아나 필라피 리버서블 시어링 코트 파비아나 필라피는 100% 양가죽을 사용해 부드러운 질감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리버서블 시어링 코트를 출시한다. 한쪽 면은 부드러운 양털 소재로 제작했으며, 다른 쪽 면은 광택과 방수 처리된 양가죽으로 이루어져 상황에 따라 색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록에 우아한 풍격을 더해주는 시어링 코트로 나만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문의 02-6960-0831

아이그너 로라 백 아이그너는 트렌디한 룩을 연출해주는 로라 백을 선보인다. 라운드 세이브에 경쾌함이 느껴

는 크로스 보디 디자인으로 가방을 감싸는 고급스러운 메탈 프레임이 돋보인다. 소가죽 태슬 장식의 포인트를 주어 발랄한 느낌을 더했으며, 벨벳 소재를 가죽과 믹스 매치해 패셔너블한 무드와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3가지 컬러로 선보이며, 오피스 룩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데일리 룩 등 다양한 스타일에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제격이다. 문의 02-546-7764

에르메네제쥬 제나 XXX 컬렉션 에르메네제쥬 제나는 스트리트 스타일의 과감한 로고 매치와 현대적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XXX 컬렉션을 출시한다. 이번 컬렉션은 제나를 표현하는 가장 대담하고 스타일 일리시한 쿠티르 라인의 캄술 컬렉션을 지난 가을 광고 캠페인 모델로 엑스의 세후이 발탁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제의 장인 정신과 각자이 돋보이는 스웨트셔츠, 조거 팬츠, 슈즈, 액세서리 등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지닌 스타일러시한 남성용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했으며, 10 종류의 국내 단독 출시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8-0285

콜롬보 비아 델라 스파가 데메테르 M 파이론 콜롬보 비아 델라 스파가는 강렬한 패턴이 돋보이는 데메테르 M 파이론을 선보인다. 기존에 선보인 데메테르 M은 소프트한 무광 악어죽으로 제작해 은은한 느낌을 주었다면, 새로운 버전은 강렬한 패턴이 특징인 파이론 소재를 사용해 포인트 백으로 줄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전면의 보디에는 파이론 소재로, 사이드는 악어 소재의 레드와 브라운, 27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2230-1225

FASHION

BEAUTY

라프래리 스킨 케비아 리프트 리프트 라프래리는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줄 스킨 케비아 리프트 리프트를 제안한다. 이 제품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프리미엄 라인, 스킨 케비아 컬렉션의 전통을 담은 제품으로, 케비아 추출물이 피부를 즉각적으로 리프팅해주는 것은 물론, 손상을 예방하고 수분과 영양을 피부 깊숙이 전달한다. 더욱 생기 있고 건강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는 스킨 케비아 리프트 리프트에 주목해보자. 문의 080-511-6626

라프래리 스킨 케비아 리프트 리프트 라프래리 데스-벤츠는 울기를 냉성을 위한 향수로 맨 그레이를 제안한다. 모던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지닌 남성성을 표현한 이 제품은 시원하고 상쾌한 베르가모트로 시작해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우디 프레시 계열의 향을 담았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와 함께 메이드한 그레이 컬러로 완성한 보틀 역시 세련된 벤츠만의 매력을 드러낸다. 문의 02-3443-1805

에트로 머스크 오데파즘 에트로로는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머스크 오데파즘'을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페이즐리 문양과 패브릭을 활용한 보틀, 패키지가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비가 오고 난 뒤 청정한 공기가 가득한 숲을 거니는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을 담은 향과 우아한 머스크 향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문의 02-3443-1805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 메르세

롤렉스 멘토 & 프로테제 아트 이니셔티브 롤렉스는 예술계 거장을 후원하고 뛰어난 장재력을 지닌 신예 예술가를 발굴하는 '롤렉스 멘토 & 프로테제 아트 이니셔티브'를 개최했다. 문화 예술에 대한 롤렉스의 열정과 끊임없는 헌신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002년부터 격년제로 진행해왔다.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건축가 데비드 아드지에 경시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의 거장들에게 1년간 1대 1 지도를 받으며 예술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2-2112-1251

샤넬 하이 주얼리 루르 신느 뒤 리옹 컬렉션 샤넬 하이 주얼리는 브랜드의 창자 가브리엘 샤넬의 별자리이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도사인 베니스의 상징인 사자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 '루르 신느 뒤 리옹'을 공개했다. 링, 아방, 브레이슬릿, 너크리스 등 8종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리프스 리즐리와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 등 우아하게 빛나는 젤스톤과 화려한 컬러가 조화를 이룬다. 문의 080-200-2700

리치트 밀 RM 71-01 리치트 밀은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KIAF 국제아트 페어에서 RM 71-01을 공개했다. 50개 한정판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브랜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오트메리 투르비용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무브먼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스켈레톤 구조가 특징이다. 눈부사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머더오브필, 오닉스, 사파이어로 여성스러움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문의 02-512-1311



JEWEL&WATCH